

상처 있는 자에서 전도제자로 거듭난 오네시모

여호수아6:25, 빌레몬서1:10-12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말씀 한 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 해결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살리고 237나라 5,000족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가정, 가문, 직장과 사업, 후대 위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중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사람은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원래 성격은 안 변한다고 한다. 나무가 쇠로, 쇠가 돌로 변하지는 않지만 나무가 의자나 조각품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변화는 있다.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과 성격은 다 다르지만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을 만나 무엇을 배웠는지에 따라 바뀐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인 기술자가 그리스도이시다. 분재에 능한 사람은 그것을 다 작품으로 만든다. 우리가 그리스도 손에 잡히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를 주께 맡겨야 한다. 자기의 장점을 자랑할 것도 없고 약점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유대인들이 장애인교육에 아주 뛰어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장애인으로 지어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깊게 연구한 것이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쓰임 받는다. 복음 안에 있을 때 작품으로 변한다. 프로이드와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어렸을 때 있던 열등감이 그 아이에게 박히면 평생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그게 운명, 사주, 팔자이다.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완전 달라졌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다 강대국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기에 세계복음화 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만이 개인, 가문,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17절에 보면,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거듭나야하고 거듭나게 해야 하고 여러분을 만나면 거듭나셔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거듭나면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행복해진다. 지난주에도 어떤 램네티가 복음 전했다고 한다. 악몽 꾸고 귀신을 봤던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밝아졌다고 한다. 정말 어두운 사람은 영접하면 밝아진다. 초등학교도 영접하더니 눈앞이 밝아졌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벗어나 성경적인 기준, 수준, 표준으로 마음, 생각, 영혼까지 거듭나야 한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로 결론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것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 주인 바뀌면 다 되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것이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꼭 증거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없을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기생 라합’, ‘오네시모’를 들 수 있다. 기생 라합은 원어를 보면 창녀로 나와 있다. 그런 말이 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머리가 좋거나 믿음이 좋거나 착하거나 눈치라도 빨라야 한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을 보고 눈치 빠르게 믿은 것이다. 오네시모도 완전 변화된 사람이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 뿐 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증직자 빌레몬도 불신자상태의 울무, 틀, 함정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확실히 발견하고 전도제자로 거듭나 평생 쓰임 받았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우연히 만난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다. 이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기 전에는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 온 것이다. 그의 신분은 노예로 추정하고 있다. 골로새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목사가 개척한 교회였다. 교인 중에는 빌레몬, 암비아, 오네시모, 야킵보 등이 있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는 ‘야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야킵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나중에는 야킵보도 사명자가 된 것이다. 야킵보라는 이름의 뜻은 ‘마부’라는 의미이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쓰임 받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에바브라는 어떻게 증직자 빌레몬을 만났을까? 에바브라는 에베소 두란노서원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두란노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집중적으로 복음의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는 골로새 현장에 파송되어 전도캠프를 하다가 빌레몬이라는 사명자를 찾아낸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전도이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만나지게 된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이 옆을 지나가도 모른다. 하나님께 ‘나는 300명 영접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고백하라.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300명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다. 여러분이 에레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완전복음을 안다.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골로새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증직자 빌레몬의 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것은 증직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거역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다. 빌레몬은 교회개척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하여 많은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받기는커녕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앙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 초급일 때는 응답을 받는다. 그런데 갈수록 계속 뭐가 안 되고 문제가 온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깨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팔아버리셨다. 야곱에게 요셉이 우상이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 그러신 것이다. 그러니 응답 받으려면 빨리 여러분의 것을 버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나의 자존심, 기준, 소원, 욕구가 다 쓸 데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다. 주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미리 응답이 와 있다. 그게 with의 응답이다. 오네시모는 돈을 가지고 골로새에서 그리스를 거쳐 로마까지 도망갔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또 범죄행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우연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간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되면서 바울에게 심복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한 종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용서와 사면이 없으면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 빌레몬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2세기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의 글에 의하면, 세월이 지나 오네시모는 디모데에 이어 에베소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한다. 완전히 거듭난 것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거듭나기 전 세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다.

창세기 3장사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은 상태 속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다. 이것을 불신자상태라고 말한다.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말씀을 주셨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면 상처받은 상태로 살게 된다. 이 영원한 상처를 불신자상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 불신자가 사탄과 세상과 자신에게 속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열등감이 많아서 고통 받는다. 상처가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다.

(1)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처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한 ① 율법주의자였다. ② 유대주의자 ③ 엘리트였다. ④ 지식만능주의자였다. 결국 자기교만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어거스틴은 자만과 교만이 창세기 3장 원죄의 뿌리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인생은 책과 논문 몇 권 못 쓰고 죽는다. 그런데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자기 기준대로 산다. 그러나 정말 엘리트는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한

다. 이것도 상처이다. 창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지려고 했던 사건이다. 엘리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하는 것이다. 교만은 무서운 것이다.

(2) 중직자 빌레몬은 어떠한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 ① 빌레몬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② 착한 사람이었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복음 없이 착하고 부지런한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교만이다. ③ 그런데 그는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업가였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이 성실, 일, 돈이었다. 이것도 상처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잘못된 가치관이다.

(3) 오네시모는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까? ①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② 그래서 항상 자신의 처지를 비판했던 사람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직장에서 일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것은 거듭나기 전 오네시모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③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탈출하려는 의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정을 하는 것이다. 이 모습이다. 불평불만 가득하면 다른 것을 찾게 된다. 그래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중독에 빠진다. 그 불만불평과 돈의 욕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사탄의 길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기쁨으로 두고 그 힘이 없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주께 맡기는 그 기도를 하라. 진짜 믿고 기도해 보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당장 응답이 안와도 아무 관계없는 상태다. 문제는 기도할 수 있으니 좋은거지 응답이 되도 안 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문제 자체를 응답으로 받는 것이 고급 신앙이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제자로 거듭나게 되었고 평생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았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세 사람이 전도제자로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세 사람의 거듭난 모습이다.

1) 바울이다.

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완전 인성이 거듭났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최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 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매번 하셨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많은 은혜를 주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으며, 우리에게 독생자가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② 사도 바울은 항상 욕심이 가득하고 부정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이었지만 항상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였다. 빌레몬서 1장 4절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는 감사하지 않고 항상 불만불평했다. 엘리트가 그런다. 사탄이 주는 지혜는 사람 살리는 일을 못하고 나 자신도 못 살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듭났다. 항상 감사하고 남을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기를 바란다.

2) 빌레몬이다.

① 자기 집만 위해 살던 빌레몬은 미션홈과 지교회의 응답을 받은 중직자로 변화되었다. 빌레몬은 나의 집과 사업, 내 가족과 가정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집을 미션홈, 교회로 만들었다. 내 이기심과 나의 집, 가정이라는 틀을 깬다.

② 이기적이고 돈만 알던 사업가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소문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빌레몬서 1장 5절을 보겠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우리를 위해 눈물, 땀,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힘든 일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줬는데 그 용서 받은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가.

③ 내성적이고 자기만 생각했던 빌레몬은 성도들과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중직자로 변화했다. 이를 뛰어넘어서 그는 오히려 목사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빌레몬서 1장 7절을 보겠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교회 안에서 중간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 신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체질이 마귀체질인 사람들이 있다. 천국체질이 되기를 바란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니 어디를 가던 천국인 것이다. 그리고 빌레몬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사도 바울의 후원자, 위로자가 되었다. 돈만 알고 우리 집과

사업만 알던 빌레몬이 선교를 위한 중직자로 거듭났다.

3) 오네시모이다.

① 마귀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씀하고 있다.

② 오네시모는 피해를 주는 사람에서 유익한 사명자로 변화되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학자들은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회개한 후에 주인인 빌레몬이 지어준 이름으로 보고 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라고 기록하고 있다.

③ 배신자, 범죄자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의 심복이 되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심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환경이 안 좋고 상처가 많고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은 충성된 자, 심복을 절대 못한다. 오네시모는 완전히 거듭난 것이다. 여러분들도 내 아들과 같은 제자를 만들기를 바란다. 그런 사역이 없이는 예수 믿는 인생이라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2)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을까?

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거듭날 수 있다. 이 세 사람이 거듭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셨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을 믿고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찾기를 바란다.

② 그러나 이들은 참 복음을 발견한 지도자로 선택되었지만 사람을 통해 양육을 받았을 때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났다. 빌레몬은 에바브라를 만났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났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③ 지속적으로 집중훈련을 받았을 때 확실히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두란노서원에서 훈련을 받았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훈련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훈련을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

④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과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지만 참된 거듭남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의 언약은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상처받은 어떤 사람도 전도제자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절대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 거듭난 것을 자주 본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과 절대목표는 237나라 5천 종족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전도자와 중직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사람을 찾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25, 영원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그 모든 현장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6가지 도구로 변화되는 확실한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램프들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6가지 도구로 쓰임 받을까 항상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5. Practice 실천이다.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은 내 자신이 거듭나야 할 부분과 거듭나게 만들어야 할 전도대상자를 기록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먼저 내 생각을 바꾸면 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237 치유서밋의 제자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미션의 말씀을 주신 것 치유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듭나고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듭남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사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영원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복음과 그리스도로 그들을 치유하고 전도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